

남은 자와 쓴 뿌리(렘 강해 설교 35)

성경말씀: 렘40:1-16, 41:1-18

예레미야 대언자 41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포로로 사로잡아간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드디어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예루살렘에 빵이 떨어져서 도시가 함락됨. 수많은 사람이 죽음. 가옥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파됨. 남은 자들의 다수가 포로로 잡혀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임한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남은 자’,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 준다.

창세기 6장의 대홍수 심판, 노아의 8명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왕상 19:18, 엘리야 시대,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 마16:18,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남은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세 암흑시대의 남은 자, 위클리프, 에라스무스, 틴데일, 존 번연, 주기철

바빌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신다. <남은 자와 쓴 뿌리>

대언자 예레미야

39:9-10, 호위대장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면서 가난한 자들만 남겨 둬.

대언자 예레미야도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사슬에 갇혀 있다가 풀려남(40:1).

예레미야의 외침: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하라.’ 대언자 역시 살려면 바빌론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 있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 예레미야를 그 땅에 남겨두셨다.

포로들을 위해서는 다니엘(20년 전, BC 606년)과 에스겔(10년 전, BC 597년)을 예비해 두셨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침.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5), 마6: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는다(2-3).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 이렇다. 회개해야 한다.

총독 그달리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그달리야가 총독이 되게 하심: 이름의 뜻 “주님은 위대하시다”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5),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신뢰하였다(9).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자 숨어 지내던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7-8, 11-12).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12), 예루살렘의 북서쪽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함

쉽게 말해 그를 도울 참모들과 게릴라 전투를 하던 자들이 다 모여 들.

18개월이나 전쟁을 했으므로 씨를 뿌리지 못해 곡식은 없었다. 그래서 야생 과일들만 모음(10).

하나님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위해 야생 과일을 예비해 두심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각각 자기 도시로 가서 생업에 종사해라.”

백성을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 타고 누르려 하지 않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성경대로 하려는 교회들과 리더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곡식이 아니라 여름 과일로 연명하는 성도들이 있다. 곡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

쓴 뿌리 이스마엘

“역사는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고 하자 마귀도 동시에 일을 시작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다. 선한 일과 모임에도 마귀가 개입한다.

그달리야의 참모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8)

요하난과 다른 대장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그달리야에게 와서 반역을 고함(13-14). 암몬

또 요하난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하나 듣지 않음(15-16). 충언을 물리칩 드디어 일이 벌어짐. 7월에 이스마엘이 왕의 통치자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가서 그달리야와 빵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방비 상태의 그달리야를 죽임(41:1-2).

중동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의 우정과 충성심을 나누는 것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자리를 빌려 반역을 하고 지도자를 죽임.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과 바빌론 사람들을 죽임(3), 이를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함(3).

그리고는 극도의 위선을 보임(5). 80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는 헌물과 향을 가지고 주의 집에 가려고 북쪽에서 내려옴. 이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통곡하면서 이들을 맞으러 나가 “그달리야를 만나러 가자.”고 속여 미스바에서 이들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음. 그리고 이 중에 10명이 곡식을 준다고 하니 살려줌(6-8). 그리고는 미스바에 있던 남은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 암몬 족속에게로 끌고 감(10).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한다.

(1) 지도자는 통치력이 있어야 한다. 그달리야는 마음이 선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통치력이 없고 주의력이 없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든 구하라고 할 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왕상3장). 부귀영화가 아니라 통치력이 중요하였다. 통치력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것이다. 지금 읽은 성경과 우리민족의 역사가 이것을 극명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이것은 충언을 듣는 데서 생긴다.

예수님의 충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마10:16)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앞으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이끌고 감독할 사람들은 이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 그달리야가 죽지 않고 남았어야만 그 땅의 백성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

a. 이스마엘은 이들을 포로로 암몬으로 데려가다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동료들이 나타나자 모두 내버려두고 8명과 함께 줄행랑을 쳐서 암몬 족속에게로 감(11-17).

b. 그런데 불행히도 요하난은 이들을 암몬 족속의 손에서는 구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집트로 끌고 갔다(17). 갈대아 사람들을 죽인 것, 믿음이 없었다.

c. 그달리야의 죽음으로 인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모두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우상의 나라 이집트로 가는 불행이 생기고 말았다.

(3) 이스마엘의 배반 동기: 그는 왕가의 씨에 속한 자(41:1), 다윗의 아들 엘리사마의 후손(삼하5:16) 왕의 통치자 10명이 함께함. 그의 불만: 바빌론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 것을 보고 복수심에 불타오름. 그래서 바빌론에 대항하던 주변국 암몬의 도움을 받아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함. 이를 위해서는 바빌론 왕이 세운 총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일이 성사되면 나중에 본인이 유다의 남은 자를 다스릴 수 있음.

(4)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개인적인 욕망, 가장 큰 문제다. ‘남은 자’의 어려움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도 쓴 뿌리가 있다. 가룟 유다, 후매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디오드레베 개인의 이득과 사적 동기를 가지고 모임에 와서 모임을 흩으려는 자들이 있다.

마귀가 가장 즐겨하는 일: 목사와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일, 누구를 통해서: 명성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의 목회 간증: 행20:28-32

반드시 외부에서 이리들이 나타난다. 내부에서 반역자들이 나타난다. 훈계를 기억하라(31).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32). 말씀의 효과(32).

(1)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2) 목사 주변의 리더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공통 철학, 충성심이 없으면 그만 두어야 함.

(3) 성도들이 목사와 리더들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 (4)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긴다. 성경대로 하려는 모든 교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전진해야 함